



21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KIA와 LG의 마지막 시범 경기. 9회초 무사 1,2루 상황에서 KIA 이종범이 3점 홈런을 날린 후 서재응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시범경기 마무리... KIA 올 기상도는?

방망이 '화끈' ... 마운드 '주춤'



최근 3경기 홈런 8방 ... CK포 이어 이종범·이현곤도 가세
이대진 수술·로드리게스 낙마 ... 6선발 체제 수정 불가피

'화력 재점화, 마운드는 비상.'
KIA 타이거즈가 21일 LG 트윈스와의 경기를 끝으로 시범경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KIA는 이현곤, 김상현, 이종범의 홈런 세 방에 힘입어 7-2 승리를 거두며 시범경기 전적 6승6패를 기록했다.

캠프에서 빠른 페이스를 보이며 순항을 예고했던 마운드는 부상과 부진으로 '빨간 불'이 들어왔다. 가장 큰 문제는 믿었던 로드리게스의 낙마다.
로드리게스는 시범경기 두 경기에서 위력적인 모습을 보이며 선발진의 무게를 더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정식 무대에 서기도 전에 팔꿈치 부상으로 퇴출됐다.

음을 주지는 못했다.
신에 전태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지만 선발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조범현 감독이 구상했던 6선발 체제는 난관에 부딪혔다.
마운드가 빠격거리는 동안 침묵하던 타선은 화력 재점화에 성공했다. 타격감이 상승세를 탄데 이어 홈런포도 연달아 터져나왔다.
시범경기 마지막 세 경기에서 KIA가 터트린 홈런만 해서 8개. '타선의 핵' 김상현, 최희섭이 손맛을 본 것은 물론 백전노장 이종범, 타격왕에 재도전하는 이현곤, 신에 이중

환·백용환 등이 고루 장타를 선보였다.
무릎 부상으로 우려를 모았던 김상현은 4개의 홈런을 장식하는 등 주전 선수들의 타격감은 분께도에 올랐다.
이번 시범경기에서 가장 많은 시범을 받은 외야수 이중환도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경험부족으로 인해 변화구 대처 능력 등에서 문제점을 노출했지만 자신감 있는 플레이와 파워로 눈도장을 찍었다.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던 수비에서도 예상외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깜짝스타' 탄생을 예고했다.
타선의 희망과 함께 마운드 속재를 동시에 떠안은 KIA는 27일 개막까지 전력 세밀화에 주력한다.
22일 오후 홈런 뒤 23일 휴식일을 보내게 되는 선수단은 24일 자체 홈백전을 갖고 마지막 평가를 받는다. 최정에 멤버들은 오는 25일 결전지인 서울로 이동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화순고 황금사자기 16강행

군산상고 10대4 꺾어

화순고가 '호남의 맞수' 군산상고를 꺾고 황금사자기 16강에 진출했다. 화순고는 21일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황금

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군산상고와의 2회전에서 1회에만 5점을 뽑아내며 10-4로 승리했다.
선두타자 정진기의 볼넷으로 시작된 1회초, 화순고는 무사 만루에서 심정보의 적시

타로 선취점을 올린 뒤 밀어내기 볼넷 3개와 상대 실책으로 5-0을 만들었다.
5회 군산상고의 반격이 시작됐다. 1회 상대실책으로 1점을 만회했던 군산상고는 5회 송기용의 3루타에 이어 김건수와 차희태의 적시타로 2점을 따라 붙었다. 7회에도 2개의 안타와 상대실책으로 추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2점차까지 추격했다.
9회 6-4의 리드를 이어가던 화순고가 군산상고의 추격 의지를 꺾는 마지막 공세를

펼쳤다. 3개의 안타를 몰아친 화순고는 몸에 맞는 볼과 상대 실책을 묶어 4점을 더하며 10-4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타선의 화끈한 지원을 받은 화순고 에이스 홍건희는 10개의 타살전과 함께 8과3분의1이닝을 7안타 4실점(2자책)으로 막으며 승리투수가 됐다.
화순고는 23일 경동고-신일고전 승자와 8강을 다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남, 안방승리 눈앞서 날려

■ 쏘나타 K-리그 2010

경남에 1대 0 앞서다 추가시간에 동점골

광주는 부산원정서 0대2 아쉬운 패배

전남 드래곤즈는 '안방승리'를 눈앞에 뒀다 무승부에 그쳤으며 광주 상무는 부산 원정서 패배의 아픔을 안았다.

전남은 21일 오후 홈인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쏘나타 K-리그 2010' 4라운드에서 경남을 맞아 아쉬운 승부를 펼쳤다.

전남은 인디오가 친정팀을 상대로 멋진 선제골을 터뜨리며 기선을 잡았지만 후반 추가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경남 이훈에게 동점골을 허용, 승부를 1-1로 마감했다.

3라운드에서 대구를 3-0으로 꺾고 시즌 첫 승을 신고했던 전남은 인디오와 지동원을 앞세운 날카로운 공격을 펼쳤다.

선제골은 전반 41분 터졌다. 지난해까지 경남의 주전으로 뛰었던 인디오가 강력한 중거리 슈터로 경남의 골망을 흔들었다.

전남의 미드필드 송한복이 돌파하는 과정에서 경남 수비수들이 협력 수비로 차단했으나 흐르는 공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이 인

디오가 20m가 넘는 지점에서 그대로 오른 발로 중거리 슈트를 날렸다. 공은 빠른 속도로 날아가 경남 골대 왼쪽 구석에 꽂혔다. 경남 골키퍼 김병지가 손도 뻗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슈팅이었다.

후반들어 거세진 경남의 공격을 잘 막아 내던 전남은 후반 45분이 지나면서 승리를 눈앞에 두는 듯했다.

하지만 추가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경남 루시오가 헤딩으로 떨치고 이훈이 세도하며 전남 골망을 흔들었다. 이로써 울시즌 경남과의 첫 충돌은 1-1 무승부로 끝났다.

광주는 부산원정에서 후반 23분과 33분에

김웅진과 김창수에게 각각 골을 허용해 아쉽게 0-2로 패했다.

이로써 전남은 1승2무1패 승점 5로 중간 순위 10위, 광주는 1승1무2패(승점 4)로 12위를 달리고있다.

제주는 제주월드컵경기장으로 불려들인 대전을 2-0으로 물리치고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펼쳤다.

또 최근 2경기 연속 무승(1무1패)에 빠졌던 울산은 전반 11분 이진호의 헤딩골과 데뷔전을 치른 콜롬비아 공격수 까르멜로의 결승골을 앞세워 조형익이 1골을 넣은 대구를 2-1로 제압했다. 대구는 이날 패배로 4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1일 오후 광양 전용구장에서 열린 2010 K리그 전남 드래곤즈와 경남 FC의 경기. 전남 지동원(노란색)이 경남 문전에서 헤딩슛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상 복귀' 박주영 정상 컨디션 아직은...

이청용 공격포인트 사냥 실패

부상에서 복귀한 박주영(25·AS모나코)이 6경기 만에 선발 출전해 62분을 뛰며 경기 감각을 점검했다.

박주영은 21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그르노블 스타드 데 알프스에서 열린 2009-2010 프랑스 정규리그(리그1) 29라운드 그르노블 풋38과 원정 경기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뒤 후반 17분 무사 마주와 교체돼 나왔다.

6경기 만에 선발로 나선 박주영은 오른쪽 허벅지에 부상을 입고 있었다.

볼 컨트롤이나 크로스 등 박주영의 경기력도 아직은 정상이 아닌 듯했다. 제대로 된

슈팅 기회도 없었다.

모나코는 리그 최하위(20위) 그르노블을 맞아 고전하다 결국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한편 이청용(22·불턴)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부상 투혼을 발휘하며 풀타임으로 그라운드를 누웠으나 팀 패배를 막지 못했다. 지난 14일 위건과 경기에서 시즌 8호 어시스트를 배달했던 이청용은 그러나 두 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사냥에는 실패했다. 이번 시즌 5골 8도움(정규리그 4골 6도움)을 기록 중이다. 불턴은 에버턴 원정에서 후반 27분 미켈 아르테타에게 프리킥골, 44분 스티븐 피에나르에게 추가골을 헌납해 0-2로 졌다.
/연합뉴스

정몽준 FIFA 부회장

올림픽추 위원장 재선

정몽준(59)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이 FIFA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시 선임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1일 "최근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FIFA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정몽준 부회장이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선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2년 런던 올림픽 축구경기도 정 위원장의 지휘 아래 개최된다. 이번 집행위원회에서는 또 그간 논란이 돼온 올림픽 축구경기의 기존 연령 제한(23세 이하) 및 3명의 와일드카드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국내 대회서 첫 2시간 6분대

서울국제마라톤, 케냐 테이멧 2시간 6분 49초 우승

케냐의 실베스터 테이멧(26·사진)이 2010 서울국제마라톤대회 겸 제81회 동아마라톤대회에서 2시간6분대의 대회 신기록으로 우승했다.

테이멧은 21일 서울 광화문-잠실 코스에서 펼쳐진 대회 남자부 42.195km 레이스에서 2시간6분49초에 결승선을 끊어 길버트 키프루토 키르와(케냐·2시간6분59초)를 제치고 1위로 끝냈다.

테이멧은 2004년 거트 타이스(남아프리카공화국)가 세운 대회 기록(2시간7분06초)을 6년 만에 갈아치웠다. 국내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6분

대 기록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테이멧은 대회 남자부 우승 상금 8만달러와 타임보너스 4만5천달러를 쟁겼다.

박영민(26·코오롱)은 2시간12분43초에 끝낸, 국내 선수 중 1위(전체 6위)를 차지했다. 박영민도 자신의 개인기록(2시간15분03초)을 2분 이상 앞당겼다.

여자부에서는 아메인 고베나(24·에티오피아)가 2시간24분13초에 끝내 2006년 대회 우승자 저우춘슈(중국·2시간25분01초)를 제치고 우승했다. 김성은(21·삼성전자는)은 2시간29분27초에 들어와 전체 5위 겸 국내 여자 선수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